부모기로의 전이에 관한 연구 Ⅱ:
-부모기로의 전이에 따른 부부 결혼적응의 변화-

Transition to Parenthood Ⅱ: Couple's Dyadic Adjustment Change across the Transition to Parenthood

서울대학교 소비자·아동학과
박사과정 고 선 주
서울대학교 소비자·아동학과
부 교 수 옥 선 화

Dept.of Consumer and Child studies, Seoul National Univ.
Doctoral course: Seon Ju Koh
Dept.of Consumer and Child studies, Seoul National Univ.
Associate Prof.: Sun Wha Ok

〈목 차〉

Ⅰ. 문제제기
Ⅱ. 관련연구 고찰
Ⅲ. 연구문제
Ⅳ. 조사방법 및 절차
Ⅴ. 결과 및 해석
Ⅵ. 결 론
참고문헌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Couple's Dyadic Adjustment Change across the transition to parenthood. Change in marital adjustment following the birth of the first child was examined in a longitudinal study of 62 couples. The couples completed a series of questionnaires during pregnancy as well as at three months postpartum.

The major findings were as follows.

1) The marital adjustment declined significantly over time. Especially, for wives, the transition to parenthood had a negative effect on postpartum marital adjustment.
2) The transiton of wives differed from that of husbands.
3) The result of a single regression indicated that, for wives and husbands, the

pregnancy marital adjustment had an effect on postpartum marital adjustment.
4) The influence of variables that had an effect on pregnancy marital adjustment changed in the postpartum marital adjustment.

Ⅰ. 문제제기

두 남녀의 결합으로 하나의 새로운 가정이 생성된다고 볼 때, 첫자녀의 출생은 결혼후 맞는 첫번째의 역할전이라는 점에서 가족전체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 사건이 된다. 즉, 자녀 출산으로 전혀 낯설은 새로운 구성원이 출현함으로 해서 가족 개개인이 맺어야 하는 관계가 갑자기 다양해진다. 또한 부부는 지금까지 수행하던 배우자 역할외에 부모 역할도 수행해야 하므로 일상적인 생활에도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된다. 더구나 중요한 것은 이 모든 변화가 빠른 시일내에 갑작스럽게 이루어지며, 새로 출현한 가족원인 유아는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점이다(고선주 · 옥선화, 1993). 더구나 부모가 되는 사람은 그들이 만나는 거의 모든 사람들로 부터 전과는 다르게 대우받고 다르게 인지되며 또 스스로도 전과는 다르게 행동하고 생각한다고 한다(LaRossa, 1986). 그러므로 역할이나 의사소통유형, 경제적 문제등 가족의 중요한 재구성을 수반하는 생애 발달단계의 전이 중에서 부모기로의 전이가 가장 중요한 전이점(Butler, 1987)이라고 볼 수 있다.

이처럼 부모기로의 전이는 커다란 변화를 불러오는 사건이기 때문에 부모기로의 전이에 대해서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다. 부모기로의 전이를 연구한 초기의 연구들(Dyer, 1963;Lemasters, 1957)은 첫자녀의 등장을 새로운 제3자의 출현으로 보고, '위기'로 간주하여 위기로서의 부모됨을 연구한 것이었다. 이러한 연구는 가족이란, 그 구성원이 추가되거나 사라지려면 체계의 재구성을 요하는 역할과 지위가 재통합되어야 하는 사회체계라는 명제에서부터 도출되어(Russell, 1974) 주로 자녀의 탄생에 따른 부모의 어려움에만 촛점을 맞추었다. 그러나 최근의 연구들을 보면 부모됨으로의 변화가 단순한 위기가 아닌 전이과정 이라는데 합의하고, 주로 부모기로의 전이에 따라서 결혼의 질이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관심을 두고있다(이숙현, 1990; Belsky, 1985; Belsky & Rovine, 1990; Waldron & Routh, 1981; Wallace & Gotlib, 1990). 즉, 첫자녀가 태어나면 바로 부모가 된 부부간의 관계가 가장 민감하게 영향받게 되므로 부모기 전이에 관한 많은 연구들이 우선적으로 부부관계의 변화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온 것이다.

그러나 부모기로의 전이에 관한 국내 연구들을 보면 부모기로의 전이라고 하는 것이 첫자녀의 탄생에 따른 부부에서 부모기로의 전환과정 이라는데는 합의하고 있으면서도 양명숙의 연구(1991)를 제외한 대부분의 연구들(이숙현, 1988;1990;박숙자, 1990)은 종단적인 방법이 아닌 회상법에 의하여 역으로 추론하는 방식을 택함으로서 과정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규명하고자 하는 것은 우선, 부모기로의 전이에 따라서 부부적응이 변화하는 문제이다. 선행연구들을 보면 부모기로의 전이에 따라서 결혼의 질이 감소한다는 연구(박숙자, 1991; Belsky, Lang & Rovine, 1985; Worthington & Burston, 1986)와 오히려 부부관계가 긍정적으로 변화한다는 연구(이숙현, 1988;1990)등으로 일치하지 않은 결과를 보이고 있으므로 우선 이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 더구나 우리나라에서는 부모기로의 전이에 따른 부부관계의 변화를 규명하기 위하여 출산을 전후하여 직접 조사 비교한 자료가 부족하므로 문화간 비교 연구를 위해서도 이를 규명해야 할 것이다. 또한 부부관계에 변화가 있다면 변화가 부부간에 다르게 나타나는지도 밝히고자 한다.

Wallace와 Gotlib의 연구(1990)에서는 출산후의 결혼적응을 설명하는데 출산전의 결혼적응이 가장 많은 부분을 설명해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우리는 아직 이러한 접근을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출산전의 결혼적응과 출산후의 결혼적응과의 관계를 규

명해야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임신기의 연구(고선주 · 옥선화, 1993)에서 임신기의 결혼적응에 차이를 가져오는 것으로 밝혀진 변수들이 출산후에도 결혼적응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규명하고자 한다.

이 같은 과정을 통하여 본 연구에서는 자녀출산을 전후한 첫자녀 임신기와 출산후 3개월을 기준으로 종단적인 연구를 실시하여 부모기로의 전이과정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하고자 한다.

Ⅱ. 관련연구고찰

1. 부모기로의 전이

부모기로의 전이에 관한 연구는 처음에 LeMaster (1957)에 의한 위기가설로서 시작되었다. 그는 중류층의 부부를 면접한 결과, 이들 대상자의 83%가 '광범위한' 혹은 '심각한 '위기였다고 보고한 것을 토대로 하여 부부가 부모기를 낭만시하고 부모 역할에 대한 준비가 거의 없어 첫자녀에 대한 적응에 큰 어려움을 가져온다고 공표하였다. 그러나 Dyer(1963)는 조사대상자의 53%만이 부모기로의 전이가 심각한 위기범주에 속한다고 보고하였으며, Hobbs(1965, 1976)는 부모기로의 전이에 관한 긍정적인 측면이 연구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고, 부모됨은 위기라기 보다는 전이로 언급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고 하였다. Russell(1974)도 부모의 90% 이상이 중간정도의 스트레스만을 겪으며, 첫자녀에의 적응이 심각한 위기경험이 아니라고 하여 부모됨이 전이과정임을 인정하였다. 대체로 이 후의 연구는 위기가 아닌 전이과정이라는 데에 의견이 일치되고 있다.

이러한 부모기 전이 연구는 외국에서는 주로, 단기 종단적인 연구방법을 채택하여 출산을 기준으로 임신말기, 출산후 1달이나 3달, 출산후 6달이나 9달 등의 시점에서 부부관계를 조사하여 임신부터 출산에 이르는 부모기로의 전이에 따른 부부관계의 변화를 연구하고 있다.

부모기전이에 관한 국내연구를 보면, 이 숙현(1990)은 자녀출생이 부부관계가 일심동체임을 확인하게 하는 계기라고 하였고, 연구결과도 긍정적인 변화가 부정적인 변화보다 더 우세하다고 하였다. 그러나 박숙자(1991)는 부모기로 전이함에 따라 결혼만족이 감소한다고 하여 상반되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상의 연구는 부모기로의 전이과정을 연구한 것이 아니고 출산후 1-2년이 지난후에 전반적인 부부관계를 묻는 회고적인 방법을 사용함으로서 부정확할 수도 있고 면접을 통한 광범위한 질문으로 자녀가 가져오는 개인적인 만족감과 부부관계의 변화가 구분되지 못한 결과일 수도 있을 것이다. 회고방식에서 오는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는 종단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양명숙의 연구(1991)를 제외하고는 종단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양명숙의 연구(1991)도 전반적인 결혼만족의 수준만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각 하위영역별로 차이를 알아볼 수 있는 척도인 DAS를 이용하여 구체적인 결혼적응의 하위 영역간에 차이가 있는지 여부를 밝히고자 한다.

2. 부모기 전이과정에서 부부관계의 안정성

부모기로의 전이과정에서 보면, 첫자녀의 출생으로 인하여 총체적인 부부관계는 변화하지만 그와 더불어서 개별적인 부부관계에는 안정적인 측면이 나타난다고 한다. Belsky, Spanier와 Rovine의 연구(1983)을 보면, 측정기간동안 상대방에 대한 평가가 유지되어 임신기 동안에 불만족을 보고한 부부가 계속해서 부모가 되어서도 불만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Wallace와 Gotlib(1990)도 임신기간중의 낮은 결혼적응이 자녀출산으로 인하여 좋아지거나 하는것은 아니며, 높은 점수를 보였던 부부가 출산후에도 계속해서 높은 점수를 보인다고 한다. 또한 결혼 후의 결혼적응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출산 전의 결혼적응이 가장 많은 부분을 설명한다고 하였다.

이상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우리의 경우도 출산이전의 결혼적응이 출산이후의 결혼적응에 영향을 미치리라고 기대되나 이러한 측면을 살펴본 국내 연구가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모기로의 전이에 따른 결혼적응의 변화와 더불어 전이과정을 거치는

동안의 상대적인 설명력을 파악해보고자 한다. 또한 설명력이 있다면 임신중의 결혼적응과 출산후의 결혼적응에 있어서 어떠한 집단의 사람들이 더 많은 변화를 보이는지도 살펴보고자 한다.

3. 부모기로의 전이에 따른 부부간의 차이

부모기로의 전이에 따른 부부의 결혼적응 변화에 관한 연구(Waldron & Routh, 1981;Belsky & Rovine, 1990)를 살펴보면 이러한 변화가 부부 모두에게 있어서 동일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즉, Waldron과 Routh(1981)는 부모가 된 후 부인의 경우는 결혼적응 점수가 의미있게 감소하였으나 남편의 경우는 차이가 없었다고 하며 Belsky와 Rovine(1990)도 출산후 남편보다 부인의 경우에 더 결혼의 질이 감소한다고 하였다. 부모가 된다는 것은 부부 모두에게 변화를 가져오는 사건이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여성이 실제로 자녀양육을 담당하고, 모성의 책임감을 더 강조하기 때문에 여성이 더 큰 변화를 맞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Wilkie와 Ames (1986)도 새로운 부모기는 남성보다 여성에게 더 큰 영향을 준다고 하여 이러한 견해를 뒷받침하고 있다.

이러한 부부간의 차이를 밝히는 것은 부와 모가 되는 것중에서 어느 것이 더 어려운 적응을 요구하는 것인지를 간접적으로 밝혀주게 되는 자료가 될터인데도 국내에서 연구된 바가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모기로의 전이에서 오는 변화가 부부간에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밝혀 부모기 전이과정에서 나타나는 부부간의 차이를 파악해보고자 한다.

4. 관련변수고찰

1) 역할전이의 준비

예측할 수 있거나 준비된 역할전이는 상처를 주지 않으며, 역할 과부담이 생길때 개인은 역할전이의 지연을 통하여 역할요구의 과부담을 피할 수 있다 (Hagestad & Neugarten, 1985). 따라서 역할전이에 대한 준비 여부가 임신기의 결혼적응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부모기로의 전이에 관한 연구 I(고선주 · 옥선화, 1993)에서는 임신기의 부부를 대상으로 역할전이의 준비기간으로 결혼전의 교제기간과 결혼에서부터 부인의 임신까지의 결혼지속기간을 살펴 보았다. 그 결과 부부 모두 일치영역에서 결혼지속기간이 긴 경우에 일치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결혼전의 교제기간이 짧은 경우에 남편의 전반적인 결혼적응과 만족, 응집의 하위영역에서 결혼적응이 더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임신기간에서의 차이가 출산후에도 지속되는가를 밝혀 그러한 차이가 일시적인 것인지 아니면 지속되는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2) 부인의 취업

부모기로의 전이에 관한 연구 I (고선주 · 옥선화, 1993)에서 취업모의 경우 부모기로의 전이가 더 어려울 것이라고 하여 임신기의 부부를 대상으로 하여 부인이 취업한 경우와 취업하지 않은 경우를 나누어 살펴보았다. 그 결과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남편의 결혼적응에서 부인이 취업한 경우에 더 낮은 결혼적응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러나 부모기 전이의 어려움은 자녀가 출산한 이후에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첫자녀가 출생한 이후에 부인 취업의 영향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

Ⅲ. 연구문제

임신기 부부의 결혼적응과 그 변화를 살펴보기 위하여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첫자녀를 출산한 이후에 부부의 결혼적응과 결혼적응 하위영역(만족, 일치, 응집, 애정표현)별 특성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첫자녀를 출산한 이후에 부부의 결혼적응과 결혼적응 하위영역(만족, 일치, 응집, 애정표현)별 특성은 부부간에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3. 부부가 부모기로 전이함에 따라서 결

혼적응과 결혼적응 하위영역(만족, 일치, 응집, 애정표현)별 특성은 변화하는가?

연구문제 4. 부모기로의 전이에 따르는 결혼적응과 결혼적응 하위영역(만족, 일치, 응집, 애정표현)별 특성의 변화는 부부간에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5. 첫자녀 임신기의 결혼적응은 출산후의 결혼적응에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6. 출산이후의 결혼적응과 결혼적응 하위영역(만족, 일치, 응집, 애정표현)별 특성은 관련변수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가?

Ⅳ. 조사방법 및 절차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성격

본 연구는 서울특별시와 수도권 지역에 거주하면서 결혼후 첫자녀를 임신중인 부부를 대상으로 하여 단기 종단적인 연구를 실시하였다. 우선 이들이 첫자녀를 임신한 기간중에 1차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자녀를 출산한 후 3개월째에 2차조사를 실시하였다. 1차조사에 응한 98쌍 196명의 부부중에서 2차조사 분석대상이 된 62쌍 124명의 일반적인 성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조사대상이 된 부인의 연령은 23세부터 31세까지 분포하였으며 평균연령은 27세였고 남편의 연령은 25세부터 36세까지로 평균연령은 30세였다. 교육수준은 남편의 경우 고졸이 8.2%이었으며 대졸이상이 91.8% 이었다. 부인은 고졸이 16.1%였고 대졸이상이 83.9%였다. 평균소득은 남편의 경우 122만 8천원이었으며 부인이 취업한 경우는 71만 3천원으로 나타났다. 결혼전의 교제기간은 평균 32개월이었으며 결혼유형은 중매혼이 8.2%, 연애혼이 65.6%, 중매반 연애반의 경우가 24.6%였다.

자녀를 출산한 후의 수유방식은 모유로 수유하는 경우가 22.6%였고 우유인 경우는 62.9%, 그리고 모유와 우유의 혼합형이 14.5%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자의 56.5%가 자녀의 양육을 도와줄 보조양육자가 존재한다고 하였고 나머지 43.5%는 부인이 전적으로 자녀를 키우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조양육자는 시어머니인 경우와 친정어머니인 경우가 각기 19.4%와 21.0%였으며 친척이나 파출부가 9.7%, 그리고 기타가 5.4%였다.

출산전에 부인이 취업하고 있던 43명의 경우에 현재에도 같은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는 53.5%였고 나머지 46.5%는 출산하면서 직업을 그만두었다고 응답하였다.

2.측정도구

측정도구는 부모기로의 전이에 관한 연구I(고선주 · 옥선화, 1993)에서 사용한 Spanier의 DAS(1976)이다.

3. 자료수집 방법 및 절차

본 연구는 부모기로의 전이에 따르는 부부적응 변화를 파악하기 위하여 자녀출산을 전후한 결혼적응 변화를 살펴본 종단적인 연구로서 1년 4개월에 걸쳐서 실시된 것이다. 이를 위하여 각 직장과 산부인과의 협조를 얻어 우선 결혼 후 첫자녀를 임신중인 부부 98쌍, 196명을 1991년 3월부터 6월에 걸쳐 질문지를 통하여 조사하였다. 직장으로 남편을 통해 연구대상에 접근한 경우는 부부 각각에게 설문지를 보내서 작성하게 한 후 별도의 봉투에 넣어 회수하였으며 산부인과를 통한 자료수집은 산부인과 병원에 찾아온 첫임신중인 부인을 상대로 간호사의 소개를 받은후 질문지를 작성하도록 하였으며, 남편의 결혼적응 척도는 우편으로 회수하는 방법을 택하였다. 1차조사 과정을 거쳐서 총 98쌍(196명)의 부부에게서 자료를 수집하였다. 1차조사대상 부부가 각기 자녀를 출산하게 되는 3개월 후에 다시 2차조사를 실시하였다. 2차조사는 먼저 전화를 통해 조사에 대한 협조를 부탁하고 난후에 우편으로 조사하는 방식을 택하였다. 1차조사가 끝난 4개월 후부터 2차조사가 시작되어 1993년 4월까지 7개월동안 2차 조사가 진행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1차조사에서 응답한 98쌍중 62쌍 124명의 자료가 수집되었다.

4. 자료분석방법

각 연구문제를 규명하기 위하여 평균과 표준편차 등을 통하여 전반적인 수준과 각 하위영역의 수준을 파악하고 부부간의 차이와 부모기 전이에 따른 차이 그리고 관련변수별로 살펴보기 위하여 쌍체 t검증및 t검증을 하였으며 임신기의 결혼적응이 출산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단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모든 절차는 SPSS PC+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처리하였다.

V. 결과 및 해석

1. 출산후 부부의 전반적인 결혼적응 수준과 부부간의 차이

〈연구문제1〉과 〈연구문제2〉인 첫자녀 출산후의 부부 결혼적응과 각 하위영역별 특성 그리고 이러한 특성에서 부부간에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부모기로 전이한 후인 출산후 3개월의 전반적인 결혼적응과 하위영역별 수준, 그리고 이러한 특성에서의 부부간 차이를 쌍체 t검증한 결과는 아래의 〈표 1〉과 같다.

첫자녀를 출산한지 3개월후에 살펴본 부부의 결혼적응은 부인의 경우 102.42점이며 남편의 경우는 106.67점으로 모두 중간을 상회하는 값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반적인 결혼적응에서 남편의 결혼적응이 부인의 결혼적응보다 더 높은 것으로 밝혀져($t=-4.10$, $p<.01$) 다른 시기와 일관되게 남편의 결혼적응이 부인의 결혼적응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을 하위영역별로 살펴보면 응집영역과 애정표현영역에서는 부부간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으나 만족영역($t=-4.15$, $p<.01$)과 일치영역($t=-3.66$, $p<.01$)에서 남편의 점수가 부인의 점수보다 더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임신기[1]에는 전반적인 결혼적응의 하위영역 중에서 만족영역에서만 부부간에 차이가 나타났으나 출산이후에는 일치영역에서도 차이가 나타나, 부부간의 차이가 더 심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2. 부모기로의 전이에 따른 결혼적응과 각 하위영역별 변화

〈연구문제 3〉인 부모기로의 전이에 따라서 부부간의 결혼적응과 각 하위영역별 특성이 변화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첫자녀를 임신중인 부부와 이들이 자녀를 출산한지 3개월이 되는 시기의 결혼적응 점수를 쌍체 t검증한 결과가 다음의 〈표 2〉와 같다.

〈표 2〉에서 나타난 부모기로의 전이에 따른 임신기와 출산후 3개월의 결혼적응 점수를 비교하면, 대체로 부모기로 전이함에 따라 결혼적응점수가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먼저 전반적인 결혼적응을 보면, 부인의 경우 자녀를 출산한 후에 결혼적응 점수가 감소한 반면($t=3.04$, $p<.01$), 남편의 경우 전반적인 결혼적응 점수는 부인이 첫자녀를 임신중일때나 자녀를 출산한 이후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영역별로 살펴보면 우선 만족영역은 부인($t=2.03$, $p<.05$)과 남편($t=3.09$, $p<.01$) 모두 자녀를 출산한 이후의 결혼적응 점수가 저하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응집영역도 부인($t=4.06$, $p<.01$)과 남편($t=3.71$, $p<.01$) 모두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일치영역에서는 부인만이 자녀를 출산한지 3개월 이후의 일치정도가 낮아지는($t=2.16$, $p<.05$) 것으로 나타났으며 애정표현영역은 부부 모두 아무런 차이가 없었다. 이는 Walron과 Routh의 연구(1981)에서 부인의 결혼적응 점수는 의미있게 감소하였으나 남편의 경우는 변화가 의미없다고 한것과 일치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Belsky등의 연구(1983)에서 첫자녀를 출산한 이후에 부부의 응집성과 애정표현이 감소한다고 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응집성은 감소하였으나 애정표현 영역은 감소하지 않았다. 이러한 차이는 부부간의 애정표현에 대한 문화적인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1) 임신기에 관한 자료는 부모기로의 전이에 관한 연구 I(고선주 · 옥선화, 1993)에 제시되어 있다.

〈표 1〉 출산후 부부의 결혼적응 경향

영역	부부	평균 (범위)	N	표준편차	쌍체 T
전반적 결혼적응	부인	102.42(0-151)	61	11.68	-4.10**
	남편	106.67(0-151)	61	10.75	
만족	부인	32.54(0-50)	61	3.53	-4.15**
	남편	33.84(0-50)	61	2.87	
일치	부인	46.39(0-65)	61	6.26	-3.66**
	남편	49.15(0-65)	61	6.26	
응집	부인	15.39(0-24)	61	3.39	-1.29
	남편	15.90(0-24)	61	3.37	
애정표현	부인	8.00(0-12)	61	1.48	- .19
	남편	8.03(0-12)	61	1.35	

* p<.05, ** p<.01

〈표 2〉 부모기로의 전이에 따른 결혼적응의 변화

영역		시기	N	평균	표준편차	쌍체t값
전반적 결혼적응	부인	첫자녀 임신기	61	105.84	11.43	3.04**
		출산후 3 개월	61	102.12	11.82	
	남편	첫자녀 임신기	58	108.83	8.60	1.55
		출산후 3 개월	58	107.02	10.73	
만 족	부인	첫자녀 임신기	62	33.27	3.79	2.03**
		출산후 3 개월	62	32.44	3.60	
	남편	첫자녀 임신기	60	34.88	2.66	3.09**
		출산후 3 개월	60	33.85	2.89	
일 치	부인	첫자녀 임신기	61	47.85	6.34	2.16*
		출산후 3 개월	61	46.39	6.26	
	남편	첫자녀 임신기	60	48.65	4.87	-. 85
		출산후 3 개월	60	49.33	6.23	
응 집	부인	첫자녀 임신기	62	16.85	2.75	4.06**
		출산후 3 개월	62	15.31	3.43	
	남편	첫자녀 임신기	61	17.34	2.98	3.71**
		출산후 3 개월	61	15.90	3.37	
애정표현	부인	첫자녀 임신기	62	7.81	1.07	- .87
		출산후 3 개월	62	7.97	1.49	
	남편	첫자녀 임신기	61	8.00	1.17	- .18
		출산후 3 개월	61	8.03	1.35	

* p< .05, ** p< .01

한편 전반적인 가족관계에서의 변화를 본 이숙현의 연구(1988;1990)에서 별다른 변화가 없거나 긍정적인 변화를 보인것과는 달리 부모기로 전이함에 따라서 부부간의 결혼적응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부부관계만을 종단적으로 연구한 결과 부모기로 전이하면서 부부간의 결혼적응이 감소하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볼 수 있겠다.

3. 부모기로의 전이에 따른 변화의 부부간 차이

〈연구문제 4〉인 부모기로의 전이에 따른 변화가 부부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규명하기 위하여 첫자녀 임신기의 결혼적응과 이들이 자녀를 출산한 3개월후의 결혼적응간의 변화값이 부부간에 다르게 나타나는가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하여 쌍체 t검증한 결과는 다음의 〈표 3〉과 같다.

모기로의 전이과정에서 오는 변화가 영역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앞의 〈표 2〉과 더불어 〈표 3〉의 결과를 정리해보면 자녀출산으로 인한 변화에 있어서 부인의 결혼적응에서의 변화가 남편의 결혼적응에서의 변화보다 더 민감하다고 볼 수 있다.

4. 출산후의 결혼적응에 대한 임신기 결혼적응의 설명력과 안정성

〈연구문제 5〉인 부모기 전이과정에서 임신중의 결혼적응이 출산이후의 결혼적응에 영향력을 미치는가를 보기 위하여 출산후의 결혼적응을 종속변수로 하고 임신기의 결혼적응을 독립변수로 하여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다음의 〈표 4〉를 보면 부인의 경우에 임신기의 결

〈표3〉 부모기로의 전이에 따른 결혼적응의 변화에서의 부부간 차이

영역	부부	변화값	N	표준편차	쌍체 t
전반적 결혼적응	부인	-3.98	61	9.66	-1.73
	남편	-1.81	61	8.99	
만족	부인	- .95	60	3.15	.18
	남편	-1.03	60	2.59	
일치	부인	-1.46	59	5.17	-2.59*
	남편	.69	59	6.29	
응집	부인	-1.49	61	2.30	- .12
	남편	-1.44	61	3.04	
애정표현	부인	.16	61	1.48	.66
	남편	.03	61	1.40	

* $p<.05$, ** $p<.01$

출산후 3개월의 부부의 결혼적응 점수와 임신기의 결혼적응 점수간의 차이가 부부간에 다르게 나타나는가를 살펴본 결과 전반적인 결혼적응과 만족, 응집, 애정표현 영역에서는 변화값이 부부간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일치영역에서는 부부간에 차이가 밝혀졌는데 부인의 경우 출산후에 일치 점수가 감소한 반면 남편의 경우는 오히려 증가하여 부

혼적응은 출산이후의 결혼적응의 42.9%를 설명하고 있으며, 남편의 경우는 임신기의 결혼적응이 출산이후의 결혼적응의 34.2%를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출산이후 결혼적응의 상당 부분을 임신기의 결혼적응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설명력은 남편보다는 부인경우에 더 크다고 할 수 있겠다.

〈표 4〉 출산후 결혼적응에 대한 회귀분석

	독립변수	종속변수	b	β	R^2	N	r[2)]
부인	임신기결혼적응	출산후결혼적응	.69	.66**	.429	61	.66
남편	임신기결혼적응	출산후결혼적응	.74	.59**	.342	58	.60

* p<.05, **<.01

임신기 결혼적응이 출산후의 결혼적응에 미치는 영향력과 더불어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두 시점간의 안정성에 관한 것이다. 안정성은 단순히 임신기와 출산후의 평균만을 비교했을때는 음의 값과 양의 값이 합산되기 때문에 정확한 경향을 알 수 없으므로[3)] 좀 더 심층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임신기의 부부적응 점수의 평균을 기준으로 하여 평균이상인 집단과 평균 이하인 집단이 부모기로 전이함에 따라서 어느 정도나 변화하는지 그 변화량을 살펴보았다. 즉, 이는 어느 집단에서 부모기로의 전이에 따라 더 큰 변화를 보이는가를 검증한 것으로 그 결과는 〈표 5〉와 같다.

안정성의 측면에서 다음 〈표 5〉를 보면 임신기간중 결혼적응이 높았던 사람들보다 낮았던 사람들이 더 안정적이며 그러한 경향은 남편에게서 더 안정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부인의 전반적인 결혼적응의 경우 임신기에 평균이하였던 사람은 1.12만이 감소한 반면에 임신기간동안 평균이상의 결혼적응을 보였던 부인은 6.79점이 감소함으로써 출산후에는 상대적인 격차가 줄어드는 결과를 가져왔다. 또한 부인의 일치 영역에서도 임신기의 결혼적응이 높았던 부인은 3.29점이 감소한 반면 낮았던 부인들은 .09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역시 임신기간에 보여주었던 차이를 줄여주었다. 그러나 여기에서 밝혀진 것은 그 차이가 임신기간에 비하여 줄었다는 것이다. 즉, 임신기에 낮은 결혼적응을 보인 부인들이 임신기에 높은 결혼적응을 보였던 부인들보다 출산후에 결혼적응이 감소하는 정도가 더 작다는 것이지 경향 자체가 역전되지는 않는다. 남편의 경우는 부모기로 전이함에 따라서 결혼적응이 감소하는 정도가 임신기의 결혼적응이 평균 이상이었던 남편들이나 평균 이하인 남편들이나 별 차이가 없게 나타나 더 안정적임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앞의 〈표 4〉와 비교해본다면 부인의 경우에 임신기의 결혼적응으로 출산이후의 결혼적응을 더 많이 설명 할 수 있지만 안정성의 측면으로 보면 남편이 더 안정적인 것으로 보인다.

5. 관련변수에 따른 출산이후의 결혼적응과 변화

부모기로의 전이에 관한 연구 I(고선주 · 옥선화, 1993)에서 결혼후 첫자녀 임신기에 결혼적응에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밝혀진 변수를 중심으로 하여 이들이 출산후에도 계속해서 유사한 경향을 보이는가를 검증해보았다.

1) 임신까지의 결혼지속기간

다음의 〈표 6〉에는 임신까지의 결혼지속기간에 따른 첫자녀 출산후 3개월의 결혼적응과 변화값의 차이가 제시되어 있다.

〈표 6〉의 결과를 살펴보면 결혼후 5개월 이내에 임신한 부부가 그 이후에 임신한 부부나 출산후 3개월의 전반적인 결혼적응에서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각 하위영역별로 살펴보았을 때에도 일치,

2) r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와의 상관관계를 제시한 것이다.

3) 출산후에 결혼적응이 변화한 경향을 보면, 먼저 부인의 경우는 부모기로 전이함에 따라서 부적인 변화를 보인 이가 35명(57.4%)였으며 변화가 없는 경우가 4명(6.6%) 긍정적 변화가 22명(36.1%)였고 남편의 경우는 부적 변화가 35명(60.3%), 변화가 없는 이가 3명(5.2%) 정적 변화가 20명(34.5%)이었다.

〈표 5〉 임신기 결혼적응을 기준으로 한 집단의 부모기로의 전이에 따른 변화값

영역		집단	변화값	표준편차	N	t
전반적 결혼적응	부인	평균이하	-1.12	9.83	33	2.40*
		평균이상	-6.79	8.40	28	
	남편	평균이하	- .68	11.19	28	.92
		평균이상	-2.87	6.08	30	
만 족	부인	평균이하	- .21	3.64	34	1.71
		평균이상	-1.61	2.59	28	
	남편	평균이하	- .82	3.02	28	.41
		평균이상	-1.10	2.14	30	
일 치	부인	평균이하	.09	5.32	33	2.61*
		평균이상	-3.29	4.66	28	
	남편	평균이하	2.17	7.50	29	1.72
		평균이상	- .60	4.49	30	
응 집	부인	평균이하	-1.03	3.43	34	1.57
		평균이상	-2.18	2.29	28	
	남편	평균이하	-1.29	3.09	28	- .11
		평균이상	-1.20	2.91	30	
애정표현	부인	평균이하	.06	1.67	34	- .60
		평균이상	.29	1.18	28	
	남편	평균이하	.00	1.33	28	- .09
		평균이상	.03	1.54	30	

* $p<.05$

응집, 애정표현 영역에서는 차이가 없었다. 다만 만족 영역에서 남편의 경우 5개월 이후에 부인이 임신한 경우가 5개월 이전에 임신한 경우보다 자녀 출산 후에는 결혼적응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출산후 3개월과 임신기에서의 변화값으로 살펴보면 전반적인 결혼적응과 다른 하위영역에서는 차이가 없었으나 부인의 만족 영역에서 결혼한지 5개월 이후에 임신한 경우가 5개월 이내에 임신한 경우보다 더 많은 결혼적응의 감소를 보이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결과를 임신기와 비교해 본다면 임신기에는 부부 모두 일치영역에서 차이가 나타났으나 출산후에는 만족영역에서 차이가 나타난 것이다. 그런데 임신기에서는 결혼후 5개월 이내에 임신한 부부의 결혼적응이 낮았으나 출산후에는 이러한 경향이 다르게 나타났다. 이것은 임신기에 높은 결혼적응을 보인 부부들의 경우에 출산후에 더 많은 감소를 보이기 때문일 것이다.

2) 결혼전 교제기간

결혼전의 교제기간에 따라 출산후 3개월에 부부의 결혼적응이 차이가 나타나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t 검증한 결과는 다음의 〈표 7〉과 같다.

임신기에서 부인의 결혼적응은 차이가 없었으나 남편의 결혼적응은 전반적인 결혼적응, 만족영역, 응집영역에서 1년이하로 교제한 남편의 경우 더 높은 점수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었다(고선주, 옥선화, 1993). 그런데 이들이 첫번째 자녀를 출산한 3개월 후에는 그 차이가 전부 사라져 버렸다. 즉 교제기간이 짧았던 남편들의 경우 부모기로 전이함에 따라

〈표 6〉 결혼지속기간에 따른 출산후 결혼적응과 변화값

영역		결혼지속기간	평균	표준편차	N	t	변화값***	표준편차	t
전반적 결혼적응	부인	5개월이하	102.00	11.90	36	- .09	-2.28	9.15	1.43
		5개월이상	102.28	11.95	25		-5.80	9.94	
	남편	5개월이하	107.43	10.57	36	.53	-1.29	8.43	.52
		5개월이상	105.65	10.90	25		-2.54	9.67	
응집	부인	5개월이하	15.50	3.09	36	.52	-1.19	3.11	1.09
		5개월이상	15.04	3.91	26		-2.04	2.85	
	남편	5개월이하	16.09	3.55	35	.49	-1.20	3.29	.72
		5개월이상	15.65	3.15	26		-1.77	2.69	
일치	부인	5개월이하	45.67	6.78	36	-1.09	-1.22	5.14	.42
		5개월이상	47.44	5.37	25		-1.80	5.54	
	남편	5개월이하	49.31	6.04	36	.21	1.31	6.44	.93
		5개월이상	48.96	6.54	26		- .20	5.96	
만족	부인	5개월이하	32.97	3.54	36	1.39	- .14	3.47	2.04*
		5개월이상	31.96	3.61	26		-1.81	2.71	
	남편	5개월이하	34.51	2.87	35	2.21*	- .91	2.64	.42
		5개월이상	32.92	2.64	26		-1.20	2.57	
애정표현	부인	5개월이하	7.86	1.38	36	- .66	.28	1.32	.74
		5개월이상	8.11	1.66	26		.00	1.65	
	남편	5개월이하	7.97	1.15	35	- .41	.06	1.26	- .58
		5개월이상	8.11	1.61	26		.15	1.59	

* $p<.05$, ** $p<.01$

*** 임신기와 출산후 3개월 사이의 점수의 차이로 변화값을 산출하였음.

더 많은 점수의 하락을 보였다. 이는 응집영역에서 변화값의 차이가 의미있게 나타난 것을 보아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결혼전에 상대적으로 오랜 교제기간을 거친 남편들이 부모기로 전이함에 따른 영향을 덜 받는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앞서 임신기에서 나타난 결과가 지속되지 않는 것을 볼때, 역할준비기간이 긴 경우에 출산후의 결혼적응이 더 용이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3) 부인의 취업

첫자녀 임신기에서는 부인이 취업하지 않은 경우에 남편의 전반적인 결혼적응이 더 높게 나타났는데 (고선주 · 옥선화, 1993) 이같은 차이가 출산후에도 지속되는 가를 살펴보기 위하여 부인의 취업유무에 따라 t검증한 결과는 다음 〈표 8〉과 같다.

출산후 3개월에 살펴본 결혼적응은 전반적인 영역에서는 부부 모두 부인의 취업유무에 따라 차이가 없었으며 하위영역에서는 자신이 취업한 부인인 경우에 더 많은 애정표현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우리의 경우는 부모기 전이기에 여성의 취업이 특별히 더 부부관계에 부적인 영향을 준다고는 볼 수 없을 것이다. 또란 이러한 차이는 출산하면서 취업을 그만둔 여성과 계속 취업하고 있는 여성을 비교하였을때도 동일한 결과가 나타나므로 자녀출산으로 인하여 취업을 그만두더라도 이것이 애정표현

〈표 7〉 결혼전 교제기간에 따른 부부의 결혼적응과 변화값

영역		교제기간	평균	표준편차	N	t	변화값	표준편차	t
전반적 결혼적응	부인	1년이하	100.22	13.80	23	.85	-6.30	10.96	-1.61
		1년이상	102.89	10.37	37		-2.24	8.47	
	남편	1년이하	104.71	12.18	24	- .53	-4.45	10.16	-1.73
		1년이상	107.22	9.80	36		- .31	7.84	
만족	부인	1년이하	31.79	3.74	24	-1.02	-1.75	3.55	-1.78
		1년이상	32.76	3.50	37		- .24	3.00	
	남편	1년이하	33.29	3.36	24	-1.09	-1.87	2.42	-1.97
		1년이상	34.11	2.47	36		- .53	2.62	
일치	부인	1년이하	45.70	7.07	23	- .56	-2.26	5.59	- .82
		1년이상	46.62	5.72	37		-1.11	5.08	
	남편	1년이하	49.21	6.86	24	.04	- .17	6.85	- .81
		1년이상	49.14	5.93	37		1.19	5.94	
응집	부인	1년이하	14.88	4.17	24	- .70	-2.17	3.00	-1.31
		1년이상	15.51	2.91	37		-1.14	3.02	
	남편	1년이하	15.38	3.24	24	- .95	-2.46	2.32	-2.08*
		1년이상	16.22	3.49	36		- .83	3.32	
애정표현	부인	1년이하	7.88	1.75	24	- .32	.04	1.83	- .48
		1년이상	8.00	1.33	37		.24	1.21	
	남편	1년이하	7.83	1.31	24	-1.01	- .42	1.56	-1.99
		1년이상	8.19	1.39	36		.31	1.24	

*p<.05, ** p<.01

영역을 제외하고는 부부관계에 부적 영향을 주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단지 임신기에서 보였던 차이가 소멸됨으로써 부모기로의 전이과정을 통해 취업여성이나 비취업여성이 모두 상대적으로 유사한 적응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Ⅵ. 결 론

부모기 전이기의 가장 중요한 역할전이 과정을 심층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결혼후 첫자녀를 임신중인 부부를 대상으로 하여 이들이 자녀를 출산 3개월 후까지 종단적인 연구를 실시하였다. 임신기 부부를 대상으로 수집된 자료 98쌍 196명 중에서 자녀를 출산한 후에 실시된 2차조사까지 응답한 경우는 62쌍 124명이었다. 이들을 대상으로 하여 출산후의 결혼적응은 어떠한지 그리고 전이과정에서의 변화, 이러한 변화에서의 부부간 차이를 살펴보고, 임신기 결혼적응의 차이에 의미있는 것으로 밝혀진 변수를 대상으로 하여 변수별로 분석을 하였다.

분석을 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첫자녀를 출산한 이후에 부부간의 결혼적응 차이는 더욱 심화된다. 이러한 결과는 임신기의 결혼적응과 비교할때, 하위영역에서의 차이가 더 뚜렷

〈표 8〉 부인의 취업유무에 따른 부부의 결혼적응과 변화값

영역		직업유무	평균	표준편차	N	t	변화값	표준편차	t
전반적 결혼적응	부인	취업	104.43	8.72	23	1.60	-3.61	7.55	.13
		비취업	99.68	13.66	34		-3.94	11.11	
	남편	취업	106.57	8.65	23	.01	-1.00	6.84	.58
		비취업	106.53	11.95	34		-2.34	10.45	
만족	부인	취업	33.00	3.00	23	1.04	- .57	2.29	.57
		비취업	32.00	3.93	35		-1.03	3.90	
	남편	취업	34.04	2.67	23	.50	- .43	1.88	1.59
		비취업	33.65	3.13	34		-1.48	1.05	
일치	부인	취업	47.87	4.60	23	1.88	-1.78	4.56	- .38
		비취업	44.94	7.17	34		-1.23	5.78	
	남편	취업	48.65	4.37	23	- .55	.17	4.19	- .61
		비취업	49.49	7.27	35		1.12	7.51	
응집	부인	취업	15.13	2.81	23	- .07	-1.39	3.37	.35
		비취업	15.20	3.85	35		-1.69	2.90	
	남편	취업	15.74	3.40	23	- .22	- .91	3.53	.95
		비취업	15.94	3.32	34		-1.68	2.57	
애정표현	부인	취업	8.43	1.20	23	2.27*	.13	1.49	.11
		비취업	7.54	1.61	35		.09	1.52	
	남편	취업	8.13	1.63	23	.59	.17	1.40	.61
		비취업	7.91	1.19	34		- .06	1.41	

*p<.05, **p<.01

하게 나타남으로써 알 수 있었다.

둘째, 부모기로 전이함에 따라서 부부간의 결혼적응은 감소한다. 부인의 경우는 애정표현 영역을 제외한 전반적인 결혼적응과 만족영역, 일치영역, 응집영역에서 첫자녀를 임신중인때보다 자녀를 출산하고난 후 평균점수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남편의 경우는 만족영역과 응집영역에서만 유의미한 저하를 보였으므로, 부모기로의 전이에 따라 부인이 부부관계에 더 민감한 부적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 즉 부인의 경우에 적응점수가 더 많이 감소하므로 부부간의 차이가 더욱 심화된다고 볼 수 있다.

세째, 부모기로의 전이는 부부간에 다르게 나타난다. 부모기로의 전이에 따른 변화값을 비교해보았을 때도 일치영역에서 남편은 긍정적인 변화를 보이고, 부인은 부정적인 변화를 보임으로써 다른 양상을 보여주었다.

이같은 결과들을 고려해 본다면, 부인이 첫자녀를 출산함으로 해서 부부가 부모기로 전이하지만 그러한 역할의 전이가 부부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부부에게 각각 다르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즉, 모가 되는 것과 부가 되는 것은 다른 과정을 거치는 것이라고 보여진다.

네째, 임신기의 결혼적응이 출산이후의 결혼적응

에 영향을 미친다. 또한 부인의 경우는 임신기의 결혼적응이 출산이후의 결혼적응을 42.9%를 설명하며 남편의 경우는 34.2%를 설명하는 것으로 밝혀져 남편보다는 부인의 경우에 임신기의 결혼적응이 출산이후의 결혼적응에 더 많은 설명력을 갖는다.

이처럼 부모기로 전이함에 따라 부부의 결혼적응이 감소하며 이러한 감소경향은 부인이 더 크다고 할때 그 중에서도 어느 집단이 더 큰 변화를 보이는가를 밝혀보기 위하여 임신기의 결혼적응이 평균 이하인 집단과 평균 이상인 집단으로 나누어서 이들의 부모기 전이에 따른 변화값의 차이를 t검증 하였다. 그 결과 남편은 차이가 없으나 부인은 전반적인 결혼적응과 하위영역중 일치영역에서 임신기의 결혼적응이 평균 이하인 부인들보다 평균 이상의 점수를 보였던 집단이 더 큰 감소를 보이는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다섯번째 결론은 임신기에 높은 결혼적응을 보였던 부인이 출산으로 인하여 결혼적응에 더 많은 부적 영향을 받는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남편의 경우는 임신기에 결혼적응이 평균이상이었던 집단이나 평균이하였던 집단 모두 변화값에서 별다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부모기로의 전이에서 오는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는 안정적인 경향을 보여주었다. 이같이 살펴볼때 첫자녀가 탄생함으로 해서 부부가 부모로 전이하지만 부가 되는 것과 모가 되는 것이 다르게 나타나고 부부관계에 받는 영향도 부부간에 차이가 있으므로 앞으로는 특히 모의 역할에 대해 더욱 주의를 기울이고 적응을 위한 교육프로그램등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는 결혼적응에 대하여 부인의 첫자녀 임신기에 나타난 관련변수의 차이가 출산후에도 지속되는가를 재분석해 보았다.

먼저 결혼지속기간의 경우 결혼한지 5개월 이전에 임신한 부부의 경우에 만족영역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그 경향을 보면 임신기에서와는 다르게 상대적으로 늦게 임신한 경우에 더 많은 부적 변화와 낮은 결혼적응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결혼전의 교제기간도 남편의 경우 교제기간이 긴 경우에 응집영역에서의 점수가 높게 나타나 임신기에서의 결과와 반대되는 경향을 보였다. 이같은 결과를 보면, 임신기에 높은 결혼적응을 보인 집단이 부모기로의 전이에 따라 더 많은 감소를 보인 것이다. 마지막으로 부인의 취업유무는 부인이 취업한 경우에 애정표현영역의 점수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단기종단적인 연구과정을 통하여 부부가 부모기로 전이하는 과정을 이해하고자 한 연구목적은 어느 정도 달성되었다고 본다. 특히 종단적인 연구를 실시함으로써 횡단적인 연구에서 오는 오류를 피하고 전이과정이 밝혀졌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본 연구에는 다음과 같은 몇가지 제한점이 있다.

먼저, 부모기로의 전이과정에 대한 본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대체로 임신기에 결혼적응이 높았던 집단이 출산후에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모든 부부의 결혼적응 자체가 유사해지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결과가 출산후 3개월인 시기에 보이는 일시적인 현상인지 아니면 부모기 전이에서 오는 어려움이 비슷하게 느껴지기 때인지를 밝히기 위해서는 후속 연구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두번째 종단적 연구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표본자체가 소수 집단에 치중되어 있고 적은 표본으로 분석을 하느라 다양한 통계기법을 활용하지 못하였다.

세번째, 2차 조사를 우편조사를 통하여 실시하는 과정에서 누락된 부부들에 대한 자료는 포기될 수 밖에 없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급격한 변화를 보이는 부부가 제외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할의 전이를 연구함에 있어서 지금까지의 회상에 의존한 횡단적인 연구에서 벗어나 종단적 연구의 가능성을 보여준 동시에, 부부간 부모기 역할로의 전이양상의 차이를 밝혔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본다.

【참 고 문 헌】

1) 고선주, 옥선화. 1993. "부모기로의 전이에 관한 연구I:첫자녀 임신기 부부의 결혼적응" 대한가정학회지 31권 2호 : 55-67

2) 박숙자. 1991. "첫자녀 출생과 부부관계의 변화" 한국가족의 부부관계 여성사회사 연구회편: 141-180.

3) 양명숙. 1991. "부모전환기에서의 결혼만족도 연구" 가족학논집3호 : 31-54.
4) 유영주. 1989. "부부문제" 대한가정학회지 27권 2호 : 212-216.
5) 이숙현. 1988. "한국 근로자 계층 부부의 결혼적응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학 22 : 161-181.
6) 이숙현. 1990. "부모기로의 전환에 따른 부부관계의 변화." 가족학 논집 2 : 1-27.
7) Belsky, J. 1985. "Exploring individual difference in marital change across the transition to parenthood: the role of violated expectatio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7:1037-1044.
8) Belsky, J. Lang M.E. & Rovine, M. 1985. "Stability and change in marriage across the transition to parenthood : A second study."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7:855-865.
9) Belsky, J.& Rovine, M. 1990. "Patterns of marital cahnge across the transition to parenthood : Pregnancy to three years postpartum."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2 :5-19.
10) Belsky, J., Spanier, G.B. & Rovine, M. 1983. "Stability and change in marriage across the transition to parenthood."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5: 567-577.
11) Butler, M.H. 1987. "Effects of the transition to parenthood on the marital subsystem of the family." *Family Perspective* 21:147-162.
12) Dyer, E. D. 1963. "Parenthood as crisis : a restudy." *Marriage and the Family* 25: 196-201.
13) Hagestad, G.O. & Neugarten B.L. 1985. "Age and the life course" In R.H. Binstock and E. Shanas(eds.), *Handbook of Aging and the Social Studies 2nd:35-61* New York : Van Nostrand Reinhold.
14) Hobbs, D.F. 1965. "Parenthood as crisis : a Third study." *Marriage and the Family* 27 : 367-372.
1976. "Transition to Parenthood : a decade replication." *Marriage and the Family* 38 : 723-731.
15) LeMasters, E. 1957. "Parenthood as crisis." *Marriage and Family Living* 19 :352-355
16) LaRossa, Ralph. 1986. *Becioming a parethood* Family Studies Test Series3. Sage Publication : Beverly Hills London New Delhi.
17) Mackim, M.K. 1987. "Transition to what? New Parent's problems in the first Year" *Family Relations* 36 :22-25.
18) Russell, C.S., 1974. "Trnsition to parenhood: Problems and gratification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36: 294-301.
19) Spanier, G. 1976. "Measuring dyadic adustment: New scales for accessing the quality of marrige and similar dyad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38:15-38
20) Waldron, H & D.K. Routh. 1981. "The Effect the first child on the marital relationship."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3: 785-788.
21) Wallace, P.M. & Gotlib, I.H. 1990. "Marital adustment during the transition to parenthood : stability and predictors of chang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2 : 21-29.
22) Wallace, P.M.. & D.K. Routh.1981. "The effect of the first child on the marital relationship."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3:785-788.
23) Wilkie, G.F. & Ames, E. W. 1986. "The relationship of infant crying to parenthood stress in the transition to parenthood."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8 :545-440.
24) Worthington, E.L. Jr & B.G. Buston. 1986. "The Marriage Relationship During the Transition to Parenthood : A Review and a Model." *Journal of Family Issues* 7 : 443-473.